

## 추 모 사

지난 5월 9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느 아들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단원고 한 학생의 열여덟 번째 생일이  
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생에서의 인연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한 발인날이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인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삶의 인연을 다한 이들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아픈 일입니다. 이 무너진 마음을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자 모두를 가슴에 묻을 것입니다.

희생자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고, 모두를 되돌아보게 했  
습니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탐욕으로 일그러져있는 우  
리 사회에 큰 족비 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작고 아름다웠던 삶’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도 아픈 일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바꿀 것은 모두  
바꾸어야 하며, 도려내야 할 것은 모두 도려내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과 함께 이번 참사의 배경과 원인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짚어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바라며 ‘희생자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기도정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봄마다 사무칠 것입니다.

그 때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이치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떠났지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주불멸(常住不滅)하니 희생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생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이 얼마나 빛으로 가득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연꽃으로 다시 핀 여러분들의 빛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구조 활동을 펼친 잠수사들을 비롯해, 몸과 마음으로 도움을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다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스님들과 불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불보살님 전에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불기2558년 5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